

[취재] 넷이벤츠 인터뷰 : 타타컴즈 아미트 신하 로이 VP

2011.04.11. 20:34

지난 2011년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랑카위 안다만 호텔(The Andaman Hotel, Langkawi, Malaysia)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넷이벤츠는 키노트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외에, 연사들과의 인터뷰 순서가 양 일간에 걸쳐 마련되었다. 아크로팬은 대한민국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타타커뮤니케이션즈 아미트 신하 로이(Amit Sinha Roy) 전략 및 마케팅 VP와의 인터뷰 세션에 참여했다.



Q1. (아크로팬) 타타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력인데, 아태지역은 유저 인터페이스/유저 익스페리언스 외에 비주얼 디스플레이 관련 수요가 큰 편. 이 부분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가?

'INSTA COMPUTE' 서비스는 웹 기반 서비스다. 웹 사이트에서는 셀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웹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CPU, RAM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도 결제도 가능하다. 종이

문서로 오더내고 수표로 결제가 가능하다. 서비스는 즉각 이용이 가능하다. 무료 시험사용이 프리 트라이얼 모드로 제공된다. 서비스는 매우 쉽게 설정 가능하다. 서비스는 셋업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다. 컴퓨팅 요건이 더 커지면 CPU, RAM, HDD 등을 확장 가능하다. 필요 없어지면 스케일 다운도 가능하다. 고객 요건에 맞춰 쉽게 조정해서 쓸 수 있다.

Q2. (아크로팬) 타타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특성 상 4G 시대로 넘어가면 거점 데이터센터 확장이 중요한데, 데이터센터 구축 또는 임대 관련 정책을 설명해 달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면, 타타커뮤니케이션즈는 티어1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는 글로벌하게 어느 나라 어디서든 액세스가 가능하다. 전세계에 42개 데이터센터를 이미 구축했다. 아태지역에서는 지난 달에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인스타 컴퓨터를 런칭했다. 아태지역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확대할 것이다.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제공되는 인스타 서비스를, 아태지역에는 모든 국가가 액세스 가능하도록 제공 중이다.

Q3. (아크로팬)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사업성, 데이터센터 입지 등은 어떻게 보는가?

한국은 한국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인스타 컴퓨터가 영어로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아태지역에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즈 분야에서 큰 시장이다. 매력적인 큰 시장에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한국어 지원과 로컬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로컬 서비스와 서포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국시장 진입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살피는 단계다.



<http://www.acrofan.com/ko-kr/live/content/?mode=view&cate=0303&wd=20110411&ucode=0803030203&page=1&keyfield=&keyword=>